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베이징·톈진·허베이 교통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베이징
문화·관광	3	힙합 등 거리예술 가르치는 어린이 문화센터 개관	파리
사회·복지	5	방치된 농가주택을 노인 복지시설로 사용	베이징
	6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용 주택 건설사업 추진	도쿄
환경·안전	8	“녹지지표 개발·생태계지도 구축으로 생태계 다양성이 우수”	싱가포르
도시교통	10	버스·지하철 타고 쇼핑센터 이용땐 승차권 제공	교토
도시계획·주택	11	주민이 참여해 기존 블록 통합하는 ‘슈퍼블록 프로젝트’ 시행	바르셀로나
정보·기타	14	시민이 지역문제 게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무료 제공	오사카
	16	휴대전화 신호 이용해 통행패턴 예측	애틀랜타
	17	소셜미디어 활용해 재해 등 응급상황에 대처	샌디에이고



베이징·톈진·허베이 교통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교통체증 완화방안…쾌속 통근열차 증편·공공자전거 5만 대로 늘려

중국 베이징市 / 도시교통

- 베이징市 교통위원회는 2015년 1월 29일에 <2014 베이징市 도시 건설과 민생업무의 교통체증 완화 편>을 발표함. 내용에 따르면, 2014년 평일 평균 교통체증 시간은 1시간 55분으로 최근 4년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15년 시의 녹색 교통지수는 2014년 48%에서 70%로 증가할 것이고, 교통체증지수는 6단계인 가벼운 수준의 교통체증으로 조절할 것이라 밝힘.
- <베이징 교통 발전 요강 2015~2030>은 2015년에 정식 발표될 예정임. 이는 2003년에 발표된 <베이징 교통 발전 요강 2004~2020>의 수정안임. 그 해 중국 최초의 교통백서로서 ‘대중교통을 우선 발전시키자’는 목표를 처음으로 수립하여 베이징 대중 교통 현대화 발전의 첫 계기가 되었음. 이 외에 2015년 시는 <베이징시 교통체증 완화 종합방안(2015~2020년)>을 발표하고 100가지의 업무를 시작할 예정임.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지역의 공동 발전에는 교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공동의 통합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따라서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세 지역은 교통정보 공유 체제를 확립하고 교통 소식 수집과 공유 서비스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회자본 참여 촉진을 통해 교통 기초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임.
 - <베이징·톈진 철도 허브 종합 규획>, <베이징·톈진·스자좡시 지역 철도망 규획> 등의 안건을 상정해서, 일부 단절도로와 병목구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 2015년에는 징친(京秦, 베이징-친황다오) 고속도로, 징카이(京開, 베이징-카이펑) 고속도로 보수공사가 시작되고, 징타이(京臺, 베이징-타이완) 고속도로, 110국도 2기 사업도 시공될 예정임. 동시에 수도 외곽 순환 고속도로, 베이징 신공항 주변 관련 공사도 추진할 계획임.

- 2015년 베이징시의 교통 업무는 ‘성(省)경계 인접지역 도로 운송 업무 및 노선의 대중교통화 운영’이 중심으로, 베이징·톈진과 주변 지역의 고속직행 운송 체계, 도시 간 철도교통과 도로운송의 대중교통 운영 방안이 모습을 갖춰 나갈 것을 의미함.
 - 교외철도 S2호선은 이미 시범 운행이 시작되어, 허베이성(河北省) 화이라이현 (怀来县)까지 왕복하는 4대의 고속철도가 준비되었음. 동시에, 베이징 평타이 철도역 등은 환승 허브로 조성될 예정임.
- 또한 녹색에너지 차량이 증대될 예정임. 그 중에는 새로운 1,010대의 전기버스, 500 대의 전기택시, 20대의 전기 관광버스가 포함됨.
 - 철도교통은 2015년에도 여전히 중요한 업무임. 수송능력 10% 증가, 오래된 구간 수리, 화장실 개선 등이 이뤄질 것임. 베이징-허베이 구간에는 쾨속 통근 열차가 추가될 것임.
 - 대중교통 도달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용 버스 전용 노선을 추진할 것임. 시는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의 도로 안내 표지 정비, 철도역 허브 건설 추진, 평궈위안(苹果园) 종합 교통 허브 건설 등이 포함됨.
- 시는 공공자전거 시설을 확대하고 서비스 지점을 늘릴 것임. 새로 추가되는 자전거는 1만 대로, 전체 규모는 5만 대에 달함. 또한 공항 주변 등 교통체증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필요한 종합방안을 발표함.
- 베이징시는 교통체증 해소 정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음. 2015년부터 시는 교통 5개년 규획을 제정하여 〈베이징시 택시 관리 조례〉, 〈베이징 자동차 주차 관리 조례〉 등을 정리해 법률상의 혼점과 현행법상의 수정사항을 보완할 것임.
 - 이를 위해 주차관리의 새로운 체계 확립, 주차관리 심사 강화, 거주지역 주차 자율관리 장려, 주차시설 공급 확대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출처 : 北京日报, 2015-01-30)

문화·관광

힙합 등 거리예술 가르치는 어린이 문화센터 개관

프랑스 파리市 / 문화·관광

- 파리市는 2015년 1월 30일 파리 20구에 켄 사로-비바 센터(Centre d'animation Ken Saro-Wiwa) 센터를 개관함. 이 센터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아마추어 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힙합이나 그래피티 같은 거리예술을 도시문화로 제도화하여 어린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함. 시는 이 센터가 아마추어와 직업예술가 사이에서 거리예술을 배우고 창작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켄 사로-비바 센터는 파리의 최빈곤 지역인 20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르 융합적인 성격을 갖는 도시문화들의 풍부한 다층성을 살릴 수 있도록 연습실을 다양한 표현양식에 적합한 다용도로 설계됨.
- 거리예술인 힙합과 그래피티를 연습할 수 있도록 설계됨. 테라스 한 곳이 힙합 연습장인 동시에 한 벽면이 그래피티 연습장으로 제공되어 연중 상설로 거리 예술을 연습할 수 있음.
- 뷔장발街(rue de Buzenval) 방면으로 난 테라스는 유명 힙합 아티스트들을 초청하여 일 년 내내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연장으로도 쓰일 예정.



- 켄 사로-비바 센터는 우선적으로 20구 지역의 유소년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음.
 - 프랑스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수요일에 수업이 없는 대신, 문화센터에서 스포츠나 예술 등의 교육을 받음. 켄 사로-비바 센터는 수요 프로그램에서 뮤지컬, 일러스트레이션과 만화 그리기 수업, 조형예술 교실, 영상 교실 등 총 200 시간의 여가교실을 제공하여, 어린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자 함.
 - 또한 여러 예술 프로젝트들을 결합해 어린이들이 예술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예술가 본인의 창작에도 정기적인 상담이 가능함.
- 주민과 지역단체들에게 가까운 시설 지향
 - 파리 주민이라면 모두 이곳에 등록해서 배울 수 있지만, 센터는 20구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공명하여 다양한 지역사업과 시민제안 사업의 장소로 특화되어 활용될 예정임.
- 이 센터는 1,000m² 부지에 4층 건물로, 그래비티 연습실 1곳, 전문 녹음시설을 갖춘 음악 연습 스튜디오 2곳, 120~150석 규모로 조정할 수 있는 공연장 1곳(다양한 공연 예술과 영화 상영, 토론회 장소로 쓰일 수 있으며, 주민 및 시민단체의 대관신청도 가능), 무용실 1곳, 조형예술실 1곳, 회의실 1곳, 멀티미디어실 1곳 등으로 구성됨.

http://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ken-saro-wiwa-un-centre-d-animation-dedie-aux-cultures-urbaines/rub_1_actu_152891_port_24329

<http://ligueparis.org/centre-animation/20eme-arrondissement/ken-saro-wiwa/>

사회·복지

방치된 농가주택을 노인 복지시설로 사용

중국 베이징市 / 사회·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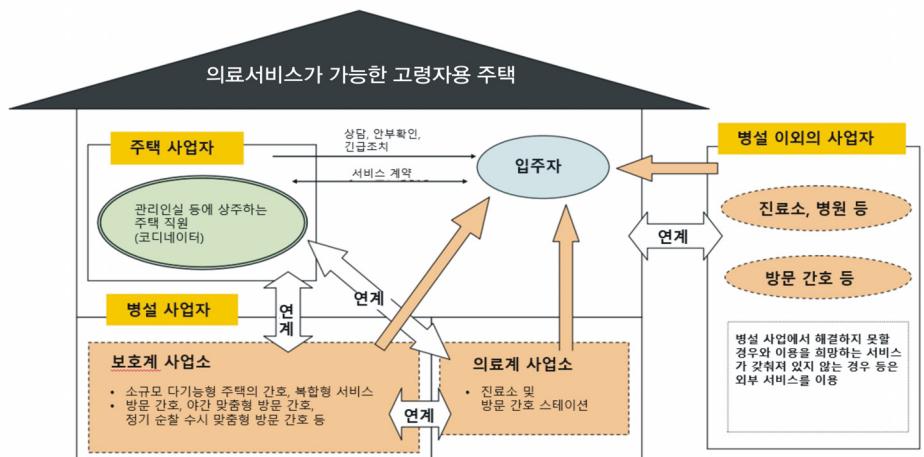
- 베이징市는 ‘노인 홈케어 복지서비스’를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특히 농촌 노인복지 문제 방안 연구 결과를 채택하여, 방치된 농가주택을 노인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됨.
- 베이징시는 농촌의 집단소유지에 노인 복지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정책적 난점을 해결하고 농촌의 노인복지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거주 지역 주변에 방치된 시설을 ‘노인 홈케어 복지서비스’에 사용하고자 함.
 - 농가원(農家院, 농부들이 운영하는 민박형태의 숙소) 같은 자원을 양로시설로 활용하여 ‘홈케어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복지서비스 업체는 농촌 노인의 소비수준이 낮아 입주를 꺼려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시는 ‘홈 케어 노인 복지서비스’ 관련 업체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부가 제정한 서비스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임.
 - 시는 지역의 노인 복지시설과 기타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사회단체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임.
 - 또한 주민들의 노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를 반영하여, 문화·오락·체육활동도 전개할 예정임.

(출처: 京郊日报, 2015-01-30)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용 주택 건설사업 추진

일본 도쿄都 / 사회·복지

- 도쿄都是 고령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료·간호·주택의 3요소가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함.



사업 개념도

- 사업의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용 주택, 의료계 및 간호 계열 병설 사업소를 대체하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정비 사업
 -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용 주택에서 제공하는 생활지원 서비스, 의료계 및 간호 계열 병설 사업소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체가 연계하여 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및 체계가 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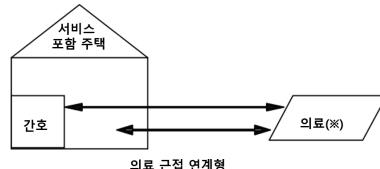
병설 사업소의 설치 조건

패턴 1
(건물 일체 연계형·인접 연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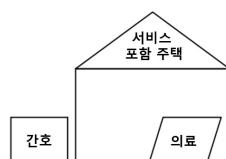


건물 일체 연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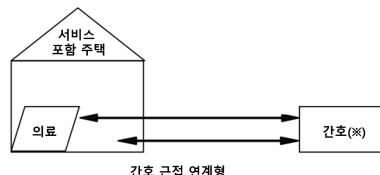
패턴 2
(근접 연계형)



의료 근접 연계형



건물 근접 연계형



간호 근접 연계형

※ 근접 사업소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에서 대체로 5분 이내 거리가 조건



- [생활 지원 서비스 공간 등]
 ① 생활 지원 서비스 가운데 긴급 시 대응, 안부 확인 및 생활 상담 등 기본 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간
 • 스태프가 상주하면서 긴급 통보 장치의 설치와 긴급 대응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관리인실 등)
 • 입주자의 생활 상담 등을 실시하기 위한 공간
 ② 거실, 식당(본래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것)외에 입주자 와 지역 주민 등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
 ③ 입주자의 요양 간호를 위한 공동 욕실 공간
 ※①의 정비는 필수.

사업 보조 금액 내역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5/02/20p22800.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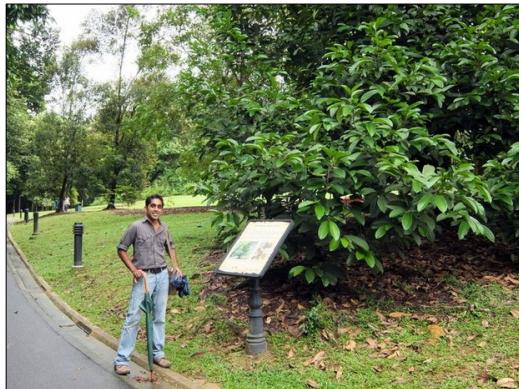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kourei/jiritsu_shien/model/index.files/26gaiyou.pdf

환경·안전

“녹지지표 개발·생태계지도 구축으로 생태계 다양성이 우수”

싱가포르市 / 환경·안전

- 싱가포르市는 도시 생태계의 다양성과 개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여러 종의 생태계가 도시에 함께 생존하고 있음을 확인함. 싱가포르市는 도시와 생태계를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500만 명 규모에 높은 인구 밀도로 싱가포르는 개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지만, 녹지 보존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음. 현재 싱가포르 전체의 50% 이상이 녹지로 보존되고 있으며, 시는 이러한 비율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은 도시의 생태계가 도시 자원의 일부이며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노력에 따른 결과임.



정원공원(Botanic garden)에서 연구하고 있는 식물학자의 모습

- 싱가포르시는 녹지개발에 대한 지표를 만들고 이 지표를 이용하여 생태계의 다양성, 동·식물 보호지역 등을 평가하고 있음. 이 지표는 현재 전 세계 80개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음.

- 2010년에는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받아 전 지역 생태계 조사를 시행하고 생태계 다양성을 평가함.
 - 싱가포르市는 개발한 지표와 방대하게 구축된 GIS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 생태계 지도를 구축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식물 보호구역 등을 관리하고 있음.
- 다양한 노력으로 싱가포르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다양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도시가 되었으며, 현재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
- 기존에는 미적인 관점에서 가로수를 심는 수준이었지만, 꾸준한 시의 노력으로 이제는 도시 전체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음.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정원은 도심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가시킴

<http://www.citylab.com/weather/2015/01/how-singapore-makes-biodiversity-an-important-part-of-urban-life/384799/>

<http://www.cbd.int/doc/meetings/city/subws-2014-01/other/subws-2014-01-singapore-index-manual-en.pdf>

도시교통

버스·지하철 타고 쇼핑센터 이용땐 승차권 제공

일본 교토市 / 도시교통

- 교토市 교통국은 다카시마야 교토점 및 교토 마루이와 공동으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eco 스템프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발표함.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나 지하철 승차권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임.
- ‘eco 스템프 캠페인’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버스·지하철을 이용하고 다카시마야 교토점 또는 교토 마루이에서 5,000엔(약 4만 6,000원)이상 구매를 하면, 스템프를 1개 받을 수 있음(1일 1개 한정).
 - 캠페인 기간 중에 스템프를 6개 모으면, ‘시 버스·교토 버스 하루 승차권 카마도’ 또는 ‘트래픽 카드(약 4,600원 상당)’와 교환이 가능함.
 - 버스·교토 버스, 1일 승차권 카드, 교토 관광 1일·2일 승차권(야마시나, 다이고 확대판 포함), 트래픽 교토 카드, 버스 전용 회수권 카드, KANSAI 카드, 시영 지하철 1day 프리 티켓 등 다양한 승차권의 교환이 가능함.



eco 스템프 카드

- 또한, 2015년 2월 14일에는 ‘eco스탬프 카드’나 ‘100엔(약 930원)순환 버스 이용권’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를 홍보하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 PR캠페인’을 시행함.

<http://www.city.kyoto.lg.jp/kotsu/page/0000177795.html>

도시계획·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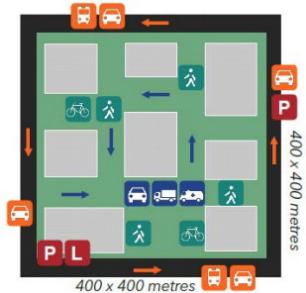
주민이 참여해 기존 블록 통합하는 ‘슈퍼블록 프로젝트’ 시행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도시계획·주택

- 바르셀로나市는 기존 도시계획에서 발생한 블록을 통합하는 슈퍼블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4년 안에 슈퍼블록 프로그램을 바르셀로나의 시범 구역에 적용시키고, 이후 바르셀로나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임.
- 바르셀로나는 1859년 등방형 격자 구조의 도로망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주거밀도를 집중시켰음. 이러한 실정으로 바르셀로나에는 밀도가 높은 도시의 여유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요구되고 있음.



바르셀로나의 도시 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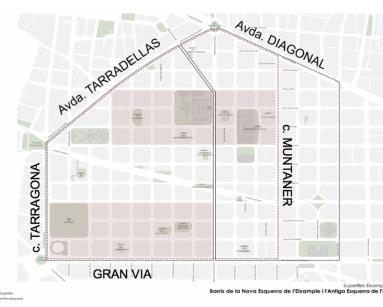


- 슈퍼블록은 기존의 블록보다 크고 구역보다는 작은 새로운 도시 구성단위임. 이 사업은 바르셀로나 도시재생 사업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점차 도시 전체로 확대하고자 함.
 - 슈퍼블록 내부에 있는 길들은 기존의 길들보다 비교적 혼잡하지 않은 상황임. 슈퍼블록은 새로운 도시 구성단위로서 생태 발자국을 줄이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바르셀로나는 생산 지역들과 외곽지역의 상호연결망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

하지 않는 자급자족의 도시가 되고자 함. 시는 이를 위해 슈퍼블록 프로그램에 정부와 시민이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방안을 마련함.



슈퍼블록 프로그램의 5개 시범지역



시범구역 Eixample의 슈퍼블록

- 시는 슈퍼블록 프로젝트에서 여섯 개의 대표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공공공간에 대해 재검토와 재정의하고 있음.
 - 지속 가능한 유동성 : 바르셀로나 도시 교통 계획에 따라 버스와 자동차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로 장려,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 감축
 - 공공공간의 재활성화 : 도로의 정비, 머무르는 공간의 증가, 공공공간의 새로운 용도변경 추진
 - 다양한 식생과 도시 녹지의 조성 : 가로수 개선, 새가 모일 수 있도록 미소서식지(microhabitat) 조성,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녹지 증대
 - 도시의 사회 조직과 사회 협력의 증진 : 주변의 적정 시설 확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 장려, 사회 통합에 이바지
 - 자원활용의 자립기반 조성 : 에너지 소비의 경감, 현지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생산, 수돗물 수요를 줄이고 중수도와 우수의 이용
 - 관리 과정의 통합 : 프로젝트의 결정과 개발행위에 시민 참여

- 슈퍼블록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시의회가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지역 단체와 이웃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조직이 협의하여 프로젝트를 강화할 계획이며, 슈퍼블록을 위한 활동도 지원하기로 함.



<http://bcnecologia.net/en/conceptual-model/superblocks>

정보·기타

시민이 지역문제 게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무료 제공

일본 오사카市 / 정보·기타

- 오사카市에서는 2015년 1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도 정보에 지역 문제와 해결 상황 등을 게시하는 ‘마이 코미 오사카’을 확대 실시하고 있음.
- 시민 이미지 투고 사이트 ‘픽스 마이 스트리트 저팬(Fix My Street Japan)’을 활용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24시간 게시가 가능하며, 오사카시는 근무시간인 평일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게시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픽스 마이 스트리트’는 2007년 영국에서 시작된 생활 불편사항 제보 사이트로 캐나다와 한국에서도 개별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당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진을 올려 간단하게 게시할 수 있음.
 -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시내 8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총 165 개의 게시물 중 불법 주륜이 37건,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33건, 낙서나 놀이 공원의 놀이기구의 파손 등의 내용이 투고되었고, 70% 이상이 해결되었음.
- ‘나의 커뮤니티’, ‘나의 커뮤니케이션’의 두 가지 의미를 담아 명명된 ‘마이 코미 오사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세대가 참여하기 쉬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목표임.
 - 오사카시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
- 오사카시는 시민과 시민 사이에서, 시민과 행정 사이에서 쉽게 소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음.

사례 주요 내용

사례1 시민 → 시민



画面イメージ

画面イメー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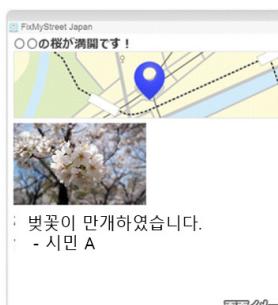
사례2 시민 → 시청



画面イメージ

画面イメージ

사례3 시민



画面イメージ

<http://www.city.osaka.lg.jp/shimin/page/0000261221.html>

<http://www.asahi.com/articles/ASH177T5XH17PTIL02L.html>

휴대전화 신호 이용해 통행패턴 예측

미국 애틀랜타市 / 정보·기타

- 애틀랜타에 위치한 AirSage社는 매일 150억 건의 통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 통행자가 소지한 휴대전화와 기지국이 통신할 때 위치정보 등이 수집되어 통행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데이터는 전체 인구의 2/3 이상이 이용하는 통신회사(Verizon, Sprint)에서 개인정보가 삭제된 통합 데이터로 수집됨. 또한 교통 엔지니어링 회사와 정부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분석하고 있음.
-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통행패턴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음.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분석하기 어려운 지역 내 통행(internal/internal)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음.
- 휴대전화를 소지한 자전거 이용자들과 보행자들의 통행패턴도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특정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얼마만큼 도시에 머물고 갔는지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함.
- 많은 대도시가 도로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이고 있으며,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을 강력히 실행하고 있음. 서울시도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http://www.businesswire.com/news/home/20120123005213/en/AirSage-Travels-TRB-Annual-Meeting-%E2%80%98HOT%E2%80%99-Lane#.VMAinfldVl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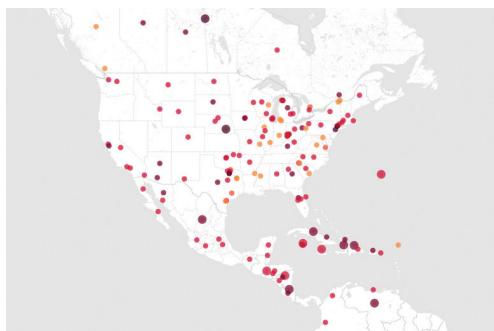
<http://www.airsage.com/>

소셜미디어 활용해 재해 등 응급상황에 대처

미국 샌디에이고市 / 정보·기타

- 샌디에이고市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재해 등의 응급상황 정보를 파악하고, 조사된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샌디에이고대학교와 함께 진행하고 있음. 샌디에이고市는 앞으로 이 플랫폼을 응급상황 대처에 활용할 계획임.
-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맹시앙 추(Ming-Hsiang Tsou)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 전염병 확산 같은 시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밝힘.
 - 기존 방식들은 정부의 보고 절차에 의해 전염병 확산에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에 신속히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어 전염병 정보 수집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기존 방식과 달리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파악하여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
 - 하버드대학교의 브라운스타인(Brownstein) 교수는 소셜미디어의 정보들이 대규모로 수집되면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big data,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데이터, 또는 이를 분석하는 기술)에 주목할 것을 강조함.
- 긴급상황의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사고발생 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생산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정보는 일반 시민들에게 먼저 확산되기가 어려운 실정임.
 - 기존에 응급상황 발생 정보를 전달했던 전화·라디오 시스템은 사진이나 영상 등の大량정보를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보 확산이 어려움.
 - 긴급정보 확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에 긴급상황 시 발생하였던 정보 확산 방식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 중임.

- 최근 시 정부는 지오피디아(Geofeedia, 위치를 기반으로 소셜미디어 정보를 검색하는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 구입하였음. 지오피디아를 이용하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에게 정보 확산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함.



소셜미디어로 파악된 전염병 확산 정보

- 추 교수는 정보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셜미디어 유력자들(influential social media users)’을 주목하고 있음. 이들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임.
- ‘소셜미디어 유력자들’은 정보의 확산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가 크고, 이들도 사회적 기여에 동참하는데 적극적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샌디에이고 거주자를 찾기 위해 팔로워(Follower,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는 정보를 구독하는 이용자) 수, 정보의 재확산 수 등을 활용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음.

<http://www.emergencymgmt.com/disaster/Can-You-Make-Disaster-Information-Go-Viral.html>